

고 집행 계획으로 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국토이용계획 상의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해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12월 31일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용도지역(10만6천59km<sup>2</sup>) 중 농림지역이 46.5%인 4만9천285km<sup>2</sup>, 관리지역은 25.6%인 2만7천206km<sup>2</sup>, 도시지역은 16.6%인 1만7천609km<sup>2</sup>,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3%인 1만1천958km<sup>2</sup>다.

도시지역(1만7천609km<sup>2</sup>)은 주거지역 2천646km<sup>2</sup>(15.0%), 상업지역 330km<sup>2</sup>(1.9%), 공업지역 1천166km<sup>2</sup>(6.6%), 녹지지역 1만2천625km<sup>2</sup>(71.7%), 미지정 839km<sup>2</sup>(4.8%)이다. 관리지역(2만7천206km<sup>2</sup>)은 계획관리지역 1만2천100km<sup>2</sup>(44.5%), 생산관리지역 4천938km<sup>2</sup>(18.1%), 보존관리지역 1만136km<sup>2</sup>(37.3%), 미세분 30km<sup>2</sup>(0.1%)이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5년의 4천729만7천여 명보다 약 17만2천여 명 증가한 4천746만9천여 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91.82%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1960년(39.1%)부터 2000년(88.3%)까지 매년 1%포인트 이상 급증하다가 2010년(90.9%) 이후 6년간은 0.92%포인트 증가에 그치는 등 2009년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을 마련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토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기상

### ■ 개요

2017년 한 해 평균기온은 13.1도로 평년(12.5도)보다 0.6도 높았다. 전국적인 규모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일곱 번째로 더웠다. 전 지구적으로도 2017년은 1~11월 평균기온이 20세기 평균기온(14.0도)보다 0.84도 높아 2016년(+0.96도), 2015년(+0.88도)에 이어 상위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연평균 강수량은 평년(1천307.7mm)보다 적은 967.7mm(평년 대비 74%)로 1973년 이후 최소 5위에 해당했다. 특히 강수량이 적었던 남부 지방은 가뭄이 계속됐다.

### ■ 기온

1~10월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상승해 1973년 이후 최고 7위를 기록했다. 4월, 5월, 7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게 나타나며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

다. 특히 5월에는 따뜻한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데다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26.4도로 평년(24.5도)보다 1.9도 높았다. 폭염일수는 6.4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5.5일)보다 많았고 평년(3.9일)의 1.5배 정도였다. 경상도, 강원 영동,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의 폭염일수는 7.5일로 전국적인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 ■ 강수량

평년과 비슷했던 2월, 7월, 12월과 평년보다 많았던 10월을 제외하면 1년 가운데 8개월은 월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다. 5~6월과 11월은 1973년 이후 최소 3위 안에 드는 매우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주로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었다. 특히 5월과 6월의 전국 평균 한 달 강수량은 각각 29.5mm, 60.7mm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대비 각각 29%, 38%에 불과한 극심한 가뭄이었다.

2017년 장마기간(6월 24일~7월 29일) 전국 평균 강수량은 291.7mm로 평년(356.1mm)의 81% 수준이었고,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해 지역 간 강수량 편차가 컸다. 특히 7월 16일 청주에 290.2mm, 천안에 232.7mm의 많은 비가 내려 관측 이래 하루 강수량 최다 1위를 경신했다.

### ■ 지진

11월 15일 오후 2시22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2.2와 2.6 지진이 12초를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전진(前震)에 불과했다. 7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2시29분31초 포항시 북구 북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4의 본진(本震)이 일어났다. 한 해 전인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국내 지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지진 발생 깊이는 비교적 얇은 7km였다. 이 때문에 여진은 이날 하루에만 33차례 발생했다. 본진 직후부터 2017년 연말까지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만 77차례였다.

이보다 두 달 앞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의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있었다. 9월 3일 오후 12시29분 발생한 지진으로, 장소는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길주 북북서쪽 40km 지역)였다. 당시 핵실험에 따른 에너지는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의 11.8배, 5차 핵실험(2016년 9월 9일)의 5~6배로 추정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이들 큰 규모의 지진을 포함해 2017년 한 해 동안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224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나뉘보면 2.0 이상~3.0 미만은 205회로 가장 많았고, 3.0 이상 4.0 미만이 17회였다. 4.0 이상~5.0 미만과 5.0 이상은 각각 한 차례 발생했다.

2017년 지진은 한 해 전(252회)보다 줄었지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유감횟수는 98회로 43회나 더 많았다.

### ■ 태풍

2017년 태풍은 총 27개가 발생해 평년(1981~2010년)의 25.6

개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난마돌(NANMADOL), 노루(NORU), 탈림(TALIM) 등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지만, 국내에 상륙한 태풍은 없었다.

제3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태풍의 북쪽에 형성된 수렴대가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유입돼 7월 3~4일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를 뿌렸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 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됐다.

제5호 태풍 노루는 기상청 기준으로 7월 21일 발생해 8월 8일 소멸하기까지 18일 8시간이나 생명력을 이어갔다. 1951년 이후 검증된 관측 자료를 갖춘 일본 기상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노루는 1986년 웨인(WAYNE · 19일)과 1972년 리타(RITA · 18일 18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래 유지된 태풍으로 기록됐다. 통상 태풍의 수명이 7~10일인 점을 고려하면 노루는 일반 태풍의 2배 가까이 유지된 셈이다.

한반도를 비껴가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던 노루는 생명력뿐만 아니라 진로도 남달랐다. 노루는 발생 직후인 7월 말께 인근을 타원형 모양으로 한 바퀴 돌고는 난데없이 남서진을 시작했다. 태풍이 대체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일반적인 태풍은 동진하다가 북서진으로 방향을 바꾼 뒤 다시 전향해서 북동진한다. 이처럼 노루가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주변에서 이끌어주는 기류인 '지향류(指向流)'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 2017년 월별 특성

### <1월> 기온 변화 크고 건조

1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0.1도로, 평년(-1.0도)보다 높았지만 중후반에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6일에 겨울(2016년 말~2017년 초) 들어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1월 21일)보다 닷새, 평년(1월 13일)보다 13일 늦게 나타난 것이다.

전국 강수량은 15.3mm로 평년(28.3mm)의 절반 수준이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날이 많아 강원 영동과 서울·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으며 특히 남부지방의 강수량(11.6mm)이 평년의 35% 수준으로 매우 적었다.

### <2월> 잦은 기온 변화

2월 전국 평균기온은 1.6도로 평년(1.1도)과 비슷했다. 다만 이동성 고기압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 변화가 잦았다. 3~6일, 15~17일은 상대적으로 포근했지만, 9~12일에는 강추위가 나타났다. 특히 9~11일 전국 평균기온은 -3.0도로 평년(0.7도)보다 3.7도 낮았으며 강원도와 경기도, 경북 북동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전국 강수량은 29.8mm로 평년(35.5mm)과 비슷했다.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부분 지역이 건조했으나 22일에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전국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게 올랐다.

### <3월> 주기적으로 기온이 변하고 건조

3월 전국 평균기온은 6.3도로, 평년(5.9도)과 대체로 비슷했다. 이동성 고기압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6~8일 베링해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형성되면서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돼 쌀쌀했다. 이후에는 바이칼호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형성되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주기적으로 흘러들어왔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아 낮 동안의 강한 일사와 밤 동안의 복사냉각으로 일교차가 컸다.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12.6도로 평년(11.8도)보다 0.8도 높았고, 평균 최저기온은 0.6도로 평년과 같았다. 평균 일교차는 12.1도로 평년(11.3도)보다 0.8도 높았다. 이 기간 일교차는 1973년 관측 이래 9위에 해당했다.

전국 강수량은 24.1mm로 평년(56.4mm)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서울·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30% 미만으로 매우 적었으며 충청남도는 1973년 이래 최소 5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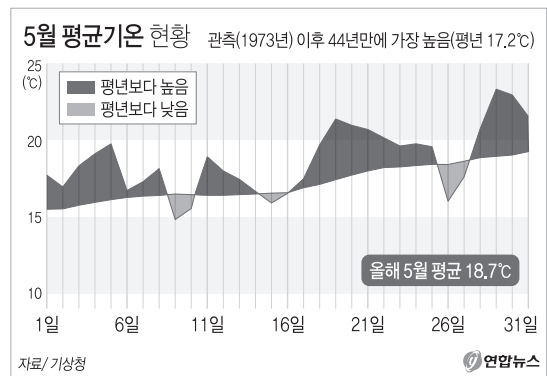
### <4월>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따뜻했던 4월

4월 전국 평균기온은 13.9도로 평년(12.2도)보다 1.7도 높았으며, 1973년 이후 최고 2위를 기록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기온이 올랐고, 전반에 고기압 가장자리와 저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낀 날씨가 찾아지면서 최저기온이 크게 상승했다. 16일과 30일에는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광주(30.4도), 성산(28.1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하루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다.

전국 강수량은 65.0mm로 평년(78.5mm)보다 적었다.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한 후 그 후면으로 저기압이 통과해 비가 자주 내렸으나 후반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했다.

### <5월> 5월 기온 4년 연속 최고 1위 경신

5월 전국 평균기온은 18.7도로 평년(17.2도)보다 1.5도 높았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과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고,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 동안의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로써 5월 평균기온 최고치 기록 경신이 2014년 이래 4년째 이어졌다. 29~30일 경상도와 전라남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밀양(36.6도), 거제(34.4도), 남해(34.1도), 완도(31.9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하루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다.



전국 강수량은 28.5mm로 평년(101.7mm) 대비 29% 수준에 머물러 5월 강수량으로는 1978년(14.4mm)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2017년 들어 5월까지의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303.4mm)의 절반 수준인 162.7mm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적었다.

2017년 월별 전국 평균 기후

기간	평균기온(°C)	평균 최고기온(°C)	평균 최저기온(°C)	강수량(mm)	강수일수(일)	일조시간(hr)
1월	0.1	5.5	-4.8	15.3	6.9	202.0
2월	1.6	7.3	-3.8	29.8	6.3	210.4
3월	6.3	12.6	0.6	24.1	7.8	227.3
4월	13.9	20.3	7.8	65.0	8.3	246.5
5월	18.7	25.4	12.5	28.5	5.7	281.6
6월	21.8	27.8	16.6	60.7	8.2	252.0
7월	26.4	30.6	23.2	308.0	17.5	145.8
8월	25.4	29.9	21.8	241.0	15.2	184.8
9월	20.6	26.3	15.8	92.1	5.5	220.0
10월	15.3	21.0	10.8	67.6	6.7	179.8
11월	6.8	12.9	1.3	12.7	4.8	206.4
12월	-0.2	5.0	-5.0	21.9	6.6	199.9
연	13.1	18.7	8.1	967.7	99.4	2,556.5

자료 : 기상청  
 주 : 2018년 1월 1일 현재 통계기준인 전국평균 지점으로 산출

**<6월> 큰 기온 변화, 적었던 강수량**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1.8도로 평년(21.2도)보다 다소 높았다. 전반에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이 많았으나 후반에 크게 올라 전·후반의 기온 변화가 컸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아 일조량(252.0시간)이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고, 낮 동안의 강한 일사와 밤 동안의 복사냉각으로 일교차(11.2도)는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강수량은 60.7mm로 평년(158.6mm)의 38%에 그치며 관측 이래 세 번째로 적었다. 제주도는 24일, 남부지방은 29일, 중부지방은 7월 1일에 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평년(제주도 19~20일·남부 23일·중부 24~25일)보다 늦게 시작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부근의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상이 저지된 탓에 장마가 늦은 것으로 분석했다.

**<7월> 잦았던 폭염·열대야, 중부에 강수 집중**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6.4도로 평년(24.5도)보다 1.9도 높았다.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크게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상승했다.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랐으며 전국 평균 최고기온(30.6도)이 관측 이래 네 번째로 높았고,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전국 평균 최저기온(23.2도)은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으로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

전국 강수량은 308.0mm로 평년(289.7mm)을 살짝 웃돌았다.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여전히 적었지만,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중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다.

**<8월> 큰 기온 변화, 중반에 집중된 강수**

8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25.1도)과 비슷한 25.4도였다. 고기압 가장자리와 저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 변화가 컸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평년보

다 높았지만, 중부지방은 강수의 영향과 찬 서·북서풍이 유입돼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이 많았다.

서해상에 정체한 저기압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으로 비가 자주 내렸으나, 전국 강수량은 241.0mm로 평년(274.9mm)보다 적었다.

**<9월> 기온 변화 크고 건조**

9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20.5도)과 비슷한 20.6도였다. 바이칼호 부근에 형성된 상층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한 가운데 초반에는 상층 찬 공기의 유입으로 쌀쌀했고, 후반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25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6일에는 서울·경기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다.

전국 강수량은 92.1mm로 평년(162.8mm) 대비 58%에 그쳤다.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은 가운데 세 차례(6일·11일·27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만 비가 내렸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25% 미만으로 매우 적었다.

**<10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많은 강수량**

10월 전국 평균기온은 15.3도로 평년(14.3도)보다 1도 높았다.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과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든 영향으로 구름 낀 날이 많아 최저기온이 크게 올랐다. 평균 최저기온은 10.8도로 평년(9.0도)보다 1.8도나 높아 관측 이래 최고 4위를 기록했다. 일교차는 10.2도로 평년(11.9도)보다 1.7도 작아 최저 3위를 찍었다.

첫서리는 10월 30일 수원, 서산, 대전, 전주, 북춘천에서 관측됐다. 서울은 31일에 관측돼 평년보다 5일 늦었다. 첫얼음은 10월 30일 서울, 수원, 대전, 북춘천에서 관측됐으며 서울은 평년과 같았다.

전국 강수량은 67.6mm로 평년(50.2mm)보다 다소 많았다.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과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남부지방,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전반에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 남쪽으로 저기압이 자주 통과했지만 후반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건조했다.

### 〈11월〉 춥고 건조했던 11월

11월 전국 평균기온은 6.8도로 평년(7.6도)보다 0.8도 낮았다. 전반에는 기온 변화가 컸지만, 후반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유입돼 추운 날이 이어졌다. 북태평양-베링해와 우랄산맥 부근에 형성된 두 상층 고기압 사이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주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아 일조시간이 평년(167.6시간)보다 38.8시간이나 많은 206.4시간으로, 관측 이래 최대 2위를 기록했다.

전국 강수량은 12.7mm로 평년(46.7mm)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11월 강수량으로는 2010년의 12.2mm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첫눈은 11월 15일 울릉도를 시작으로 11월 17일 서울과 북한에서 관측됐다. 서울은 평년보다 나흘 빨랐다.

### 〈12월〉 지속적인 상층 찬 공기의 유입으로 '혹한' 이어져

12월 전국 평균기온은 -0.2도로 평년(1.5도)보다 1.7도나 낮았다. 11월 중반에 시작된 음의 북극진동이 12월 중반까지 지속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기 좋은 조건이었다. 우랄산맥-카라해 부근에 형성된 상층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특히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12일에는 평년(2.1도)보다 8.1도 낮아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6.0도)을 기록했다.

전국이 꽁꽁 얼면서 15일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나타났다. 이는 2016년(1월 26일)보다 42일 빠르고, 평년(1월 13일)보다 29일 빠른 것이다.

전국 강수량은 21.9mm로 평년(24.5mm) 대비 91%를 기록했다.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다. 일조시간은 199.9시간으로 평년(169.4시간)보다 30.5시간 많아, 1983년(205.5시간)에 이어 최대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반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24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이 올랐다.

## 인구

### ■ 총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한국은 다출산 사회였다. 기반 산업인 농업이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산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질병, 식량 부족, 보건·위생환경 불량 등으로 출생아의 생존율이 낮아 광복 이전의 인구 증가 속도는 그 이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통계청이 공개한 '총조사 인구 총괄 자료(북한 인구 제외/이하 동일)'를 보면 1925년 인구는 1천300만5천931명에 불과했다. 1930년 1천390만805명, 1940년 1천562만7천186명, 1944년 1천656만5천317명까지 증가했다. 1949년에는 2천16만6천756명을 기록하며 2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전쟁 휴전 후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출산 붐이 일고 의

료·보건환경이 개선되자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1955년 2천150만2천386명, 1960년 2천498만9천241명, 1966년 2천915만9천640명을 기록했다.

1960년대 들어 정부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빠른 인구 증가가 빈곤의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1970년 3천143만5천252명, 1975년 3천467만8천972명, 1980년 3천740만6천815명, 1985년 4천41만9천652명 등 인구 증가 속도는 한동안 가파르게 이어졌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아제한 정책, 국민의 가치관 변화,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는 1990년 4천339만374명, 1995년 4천455만3천710명을 기록해 증가 속도가 전에 비해 낮아졌다.

1996년 정부는 낮아진 인구 증가를 변화를 고려해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 속도는 계속 떨어져 2000년 4천598만5천289명, 2005년 4천704만4천434명, 2010년 4천799만761명을 기록했다. 2016년 기준 총조사 인구는 5천126만9천554명이다.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2004년 국가 의제로 설정했다. 2005년에는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2006~2015년까지 5년 단위로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됐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평균 수인 합계출산율을 보면 인구 증가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970년 4,530명이던 합계출산율은 1973년 4,070명, 1974년 3,770명, 1976년 3,000명으로 내림세가 이어졌다. 이후 1977년 2,999명, 1983년 2,060명을 기록하며 2명대로 내려앉았다. 1984년 1,740명으로 1명대로 접어들었고 2001년 1,297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 시대가 됐다.

2017년에 합계출산율이 1.050명으로 잠정 집계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때까지 17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졌다.

### ■ 출생

2017년 출생아는 국내 행정기관 등록 기준으로 35만7천7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출생아(40만6천200명)보다 4만8천500명(11.9%) 감소한 수준이다. 출생아 수가 4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